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5 제4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4-9] 인문 통합

역사주의자에 대한 포퍼의 비판

지문 평가

(가)에서 진보적 역사관의 주장을 이해하고, 그러한 주장이 (나)에서 포퍼에 의해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렵지는 않은 글이지만,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는 글이니 교양 삼아 충분히 읽어 두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서양 철학 - 진보적 역사관, 포퍼

- (가) 계몽주의자, 진보적 역사관, 비코, 데카르트,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 콩트, 실증주의 학문론, 신학적 단계, 초자연적 행위자, 형이상학적 단계, 추상적 존재자, 실증적 단계, 법칙
- (나) 포퍼, 역사주의,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역사주의자, 규칙성, 역사 발전의 법칙, 가설

(가)문단 1 진보적 역사관의 등장

17세기 말 **계몽주의자**들의 등장 이후 많은 사상가들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을 취해 왔다. **진보적 역사관**에 따르면 역사는 특정 단계의 문명이 다음 단계의 문명에 자리를 양보하면서 진보한다. 이러한 사관을 최초로 정립한 이는 비코이다.

▶ 역사에 '단계'가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진보한다는 내용에 주목하자. 역사가 어떤 단계들로 구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어떻게 '진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가)문단 2 데카르트의 학문론에 대한 비코의 비판

1) 18세기 초 **비코**는 삶에 대한 데카르트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진보적 역사관을 최초로 정립한 비코의 주장이다.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비코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카르트의 관점을 이해해야겠다.

2) **데카르트의 학문론**에 따르면 사회 현상 등 비정량적(非定量的)인 사실들에 대해 갖는 믿음처럼, 자명한 진리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믿음은 환상(幻像)일 뿐이다.

▶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회 현상은 비정량적인 사실이며, 사회 현상에 대한 학문은 비정량적 사실에 대해 갖는 믿음이다. 따라서 사회 현상에 대한 학문은 자명한 진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상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데카르트는 '사회 현상에 대한 믿음'을 학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참고] 데카르트는 진리가 절대적 확실성을 갖는 믿음이라고 주장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믿음만이 절대적 확실성을 갖는 지식이다.

3) 이와 달리 **비코**에 따르면 모든 사회 현상은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앎은 그 역사적 기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므로, 학문은 인간의 관념, 관습, 행위의 역사에 대한 앎이다.

▶ 이번에는 '비코'의 입장이다. 사회 현상의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다.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앎은 그러한 인간 활동[→ 인간의 관념, 관습, 행위의

'역사적 기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그러한 인간의 관념, 관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간 활동은 또 다시 그 이전의 인간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달리 표현하면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활동의 결과인 그러한 사회 현상의 역사적 기원, 즉 인류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다.

4) 그리고 이러한 앎은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 발전의 원리를 추출해야 도달 가능하다. 원리를 결여한 역사는 사건들의 우연적 발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다만 인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 활동의 역사적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 발전의 원리'가 반드시 추출되어야 한다. 만약에 역사가 단지 사건들의 우연적 발생이라면 그러한 역사는 이유 없이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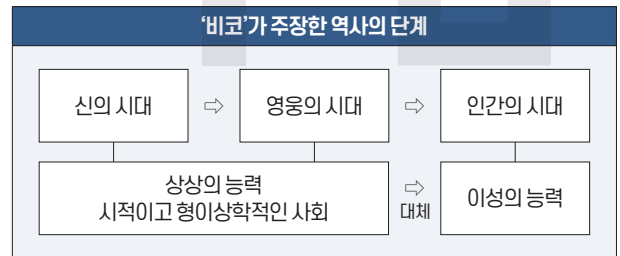
(가)문단 3 비코의 진보적 역사관

1) 비코는 역사가 신, 영웅, 인간의 시대라는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각 시대의 출현은 인간 본성이 발전한 결과인데, **신의 시대**와 **영웅의 시대**는 상상의 능력, **인간의 시대**는 이성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 비코가 주장한 '역사 발전의 원리'겠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역사가 진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 역사의 유년기[→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에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 뛰어난 시인(詩人)[→ 상상의 능력]이었으므로 그 시대의 사회는 시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이었고, 이후 이성이 성장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의 수단으로 이성이 상상을 대체함에 따라 인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본 것이다. 역사는 인간이 잠재력을 더 많이 실현하는, 진보의 방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 중요한 건 역사가 이러한 단계들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진보'하게 된다는 거다.



(가)문단 4 콩트의 진보적 역사관과 실증주의 학문론

1) 한편 19세기 초 **콩트**는 비코와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의 발전과 역사 단계를 대응시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내세웠고, 이에 기초하여 **실증주의 학문론**을 주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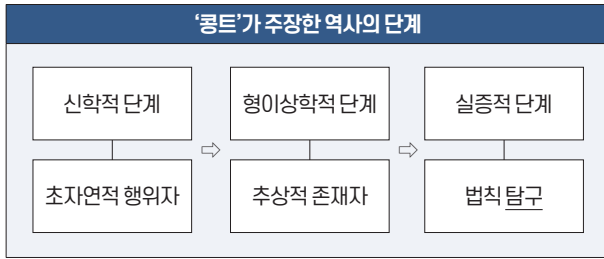
▶ '콩트' 역시 '비코'와 마찬가지로 인간 정신의 발전과 역사 단계를 대응시키는데, 이러한 진보적 역사관은 실증주의 학문론으로 이어진다.

[참고] '실증주의'는 경험과 검증에 기반을 둔 사실만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증주의 학문론은 관찰과 실험 등 과학적 방법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다.

2) 콩트에 따르면 인간 정신은 신학적, 형이상학적, 실증적 단계를 거치며 발전한다. **신학적 단계**에서 인간 정신은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그것의 궁극적 원인으로 간주되는 **'초자연적 행위자'**[→ 신]를 통해 이해하며, **형이상학적 단계**에서는 이데아나 세계정신과 같은 **'추상적 존재자'**를 통해 이해한다. 나아가 **실증적 단계**에서 인간 정

신은 현상의 원인 찾기를 넘어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찾는다.

➡ **콩트의 진보적 역사관을 정리해 보자.**



➡ 인간 정신은 어떤 놀라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초자연적 행위자’를, 그리고 그다음에는 ‘추상적 존재자’를 상정한다.

❶ **주목** 그러나 ‘실증적 단계’로까지 나아갔을 때는 더 이상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려 하지 않는다. 아예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법칙 그 자체를 탐구하게 된다. 가령 ‘천둥 번개’를 ‘신학적 단계’에서는 ‘신의 분노’로 설명했다면 ‘실증적 단계’에서는 ‘구름의 대전(帶電)’ 같은 물리학적 법칙으로 설명한다.

- 3) 콩트에 따르면 이렇게 인간 정신이 발전함에 따라 역사가 진보해 왔다. 콩트는 실증적 단계 내에서도 자연 과학의 성장이라는 토대 위에 출현한 사회 과학이 가장 발전된 최종 단계의 과학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 과학은 인류의 지식 발전 과정을 처음부터 살피며 반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으로 역사적 방법도 채택할 수밖에 없다.

➡ ‘콩트’는 실증적 단계를 더 잘게 나누어, ‘사회 과학’이 ‘자연 과학’ 다음 단계의 과학이라고 주장한다.

➡ 이러한 사회 과학은 실증적 단계의 최종 단계인 만큼 인류의 지식 발전 과정을 전부 살피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방법’을 채택한다.]. 그러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탐구하게 된다.

(나)문단 1 역사주의에 대한 포퍼의 비판

- 1) **포퍼**는 ‘역사가나 사회 과학자는 역사의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이나 경향에 대한 앞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역사주의**’라 일컫고, 이와 같은 진보적 역사관을 비판하였다.

❶ **맥락 짚기** (가)의 ‘비코’와 ‘콩트’가 주장하는 진보적 역사관을 ‘역사주의’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역사가 단계별로 진보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때 역사의 개별 사건들로부터 ‘역사 발전의 원리’[→ 역사의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이나 경향]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역사의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이나 경향에 대한 앞’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개별 현상을 통해 ‘역사 발전의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고, 그러한 원리로부터 다시 개별 현상을 설명,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보면 굉장히 ‘자연 과학적 방법’임을 떠올릴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제 보니까 아침에 해가 떴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또 해가 떴다.’와 같은 개별 자연 현상을 통해 ‘아침에는 해가 뜬다.’라는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통해 ‘내일도 아침에 해가 뜰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 2) 포퍼에 따르면 역사주의는 갈릴레이와 뉴턴에 의해 성과를 거둔 자연 과학의 방법론을 사회 과학에 적용하려는 **실증주의**를 수용하지만, ……

➡ 이렇게 자연 과학적 방법[→ 개별 현상으로부터 원리를 도출하여, 그러한 원리로부터 개별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함]을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을 ‘**실증주의**’라 하고……

- 3) ……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의 차이를 강조하는 **반실증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 반대로 자연 과학적 방법으로는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반실증주의**’라 한다.

❶ **주목** ‘포퍼’에 따르면 역사주의자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다. 어떨 때는 ‘실증주의’를 따르고, 어떨 때는 ‘반실증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나)문단 2 역사주의자들의 관점

- 1) **역사주의자**들은 자연 현상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이 사회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반실증주의적 주장을 펼친다.

➡ 문단-3)에서 언급된 ‘반실증주의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 2) **규칙성**이란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 현상의 경우 역사적 시대마다 사건들의 발생 상황과 발전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어야 규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아침에 되면 해가 뜬다는 것은 유사한 상황[→ ‘아침이 되다’]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있다.

➡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 유사한 상황에서 전쟁이 나는 경우도 있고 나지 않는 경우도 있듯이 유사한 상황이 유사한 사건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가령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병력이 큰 즉 군인의 수가 많은 국가나 군대가 승리했지만 현대에서는 군인의 수가 아니라 첨단 무기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❶ **맥락 짚기** 이렇게 보면 ‘규칙성’이 없는 사회 현상으로부터 어떤 ‘법칙’을 도출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색해 보이는데……

- 3) 역사주의자들은 다른 한편에서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법칙이 요구된다고도 주장한다.

➡ 역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칙을 발견해야 한다[→ 실증주의].

- 4) 다만 시대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해야 하므로 그것은 규칙성에 관한 법칙인 자연 과학에서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법칙이어야 한다.

❶ **주목** 하지만 동시에 ‘규칙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반실증주의], 이때의 법칙은 ‘자연 과학에서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법칙이어야만 한다.

- 5) 그럼에도 그것이 법칙인 한 모든 시대를 아울러야 하므로, 역사주의자들은 이를 역사적 시대들을 이어 주는 법칙,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이행을 결정하는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 규정한다.

➡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대의 단계별 진보를 설명하는 ‘역사 발전의 법칙’이란 실증주의적 태도와 반실증주의적 태도 간의 타협의 결과인 셈이다.

역사주의자의 이중적 관점	
반실증주의적 관점	실증주의적 관점
자연 현상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이 사회 현상에는 없음	시대를 관통하는 법칙 [→ 역사 발전의 법칙] 필요

(나)문단 3 역사주의자에 대한 포퍼의 비판

- 1) 그런데 **포퍼**는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제한된 조건에서의 법칙들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사 법칙이나 경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역사주의자들에 대한 포퍼의 비판이다. 한마디로 사회 현상에는 자연 과학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겠다. 어떠한 '법칙'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2) 그들이 말하는 역사 법칙이란 태초부터 이어져 온 단 하나의 고유한 과정에 대한 가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역사주의자'가 주장하는 법칙이란 '법칙'이 아니라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3) 그것이 실제 법칙이라면 여러 사례에 의해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포퍼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하나의 역사적 과정만을 볼 수 있을 뿐 이므로 역사 법칙에 대한 시험은 불가능하다.

➡ 포퍼에 따르면 법칙은 시험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법칙에 대해 등장하는 '새로운 사례들'을 통해 해당 법칙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따져 볼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러나 역사적 과정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단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일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가설은 결코 시험 가능성이 있는 '법칙'이 될 수가 없다.

4) 단 하나의 역사적 과정을 살피는 것이 역사 발전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우리가 애벌레 하나의 성장 과정만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비가 된다는 것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다.

➡ 우리가 어떤 애벌레[→ 개별 현상]를 보고 '이 애벌레는 장차 나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무수히 많은 애벌레가 나비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여러 사례에 의해 시험을 거침으로써] '애벌레는 성장하면 나비가 된다.'라는 법칙을 이미 검증했기 때문이다.

➡ 현대 세상에 단 하나의 애벌레만 존재했다면, 시험을 가진 법칙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관찰한 적이 없으므로 애벌레가 나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하나의 역사적 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 **주목** 마찬가지로 논리로 단 하나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칙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개별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나)문단 4 역사주의자들의 반박과 그에 대한 포퍼의 재반박

1) 어떤 역사주의자들은 역사적 과정이 하나인 것이 아니어서 법칙을 시험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생물이 삶의 주기를 가지는 것처럼 각 사회와 문명을 개별 과정으로 보아 역사 법칙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한국, 일본 등 각 사회의 역사적 과정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 과정이 하나여서 발생하는 문제[→ 역사주의자에 의해 법칙이라고 주장되는 것이 시험 가능성을 갖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포퍼에 따르면 개별 과정을 구분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법칙이라는 것들은 그저 일부 사례에만 부합하는 비과학적 가설일 뿐이다. 역사에는 무수히 많은 반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포퍼에 따르면 어떤 역사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개별 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가령 탄생, 성장, 완숙, 쇠약, 죽음이라는 주기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사회도 존재하겠지만, 전혀 그러한 주기를 갖지 않는 사회의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3) 한편 다른 역사주의자들은 하나의 고유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법칙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향성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 다른 역사주의자들의 반박이다. 이들은 1)의 '어떤 역사주의자들'처럼 역사적 과정이 여러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신 하나의 고유한 역사적 과정에서 법칙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경향성' 정도는 있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인구 증가의 경향성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인구 감소의 경향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경향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 근거로 사용되기는 힘들다.

➡ 포퍼에 따르면, 역사에 그러한 경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향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경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개별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다.

이감

이자율 평가설의 원리와 환율 결정

지문 평가

문단2의 수식은 '이자율 평가설'을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 이를 토대로 자본이 미국으로, 혹은 국내로 이동함에 따라 이자율과 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 중심의 글은 각각의 과정을 잘 정리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환율, 이자율

이자율, 투자 수익률, 환율, 외환 시장, 이자율 평가설, 균형 환율, 예상 환차익, 통화량

문단 1 이자율 평가설

1)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환전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자.

➡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자본 이동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거고, 환전 수수료도 존재할 거다.

2) 국내 채권의 이자율이 연 5%이고 미국 채권의 이자율이 연 3%인데, 모두 투자 위험이 없다면[→ 이 역시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이다.] 이 같은 투자 수익률 차이로 인해 달러에 대한 원화의 교환 비율을 뜻하는 환율이 내려간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서 외환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 투자자 입장에서 같은 돈을 투자해도 이자율이 더 높은 '국내 채권'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내 채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다.

국내 채권 이자율 > 미국 채권 이자율

⇒ 국내 채권 매력 ↑ ⇒ 외환 시장 달러 공급 ↑ ⇒ 환율 ↓

➡ 이때 상관관계도 확실히 정리해 두자. 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외환 시장에 달러가 많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즉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흔해질수록[→ 사람들이 달러를 원화로 많이 바꿀수록] 환율은 낮아진다. 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다.

[참고] 환율은 외화의 가격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의 가격'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 이 전에는 1달러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가격이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면[→ 환율이 올랐다면], 이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달러가 귀해졌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거꾸로 환율 변동이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2)는 국내 채권과 미국 채권의 투자 수익률 차이로 인해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 **주목** 결국 투자 수익률 차이는 환율을 변동시키고, 그러한 환율 변동은 투자 수익률을 다시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양방향적 영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다.

4) 미국의 투자자 '갑'이 1만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국내 채권에 1년간 투자 후 자금을 달러로 회수하려 할 때, 달러당 1,000원이던 환율이 그사이[→ 1년 사이에] 1,050원으로 오르면[→ 5% 상승하면] 달러 기준으로 수익이 남지 않는다.

➡ 2)에서 국내 채권 이자율은 연 5%, 미국 채권 이자율은 연 3%이다. 국내 채권 이자율이 높으니 '갑'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국내 채권에 투자하게 된다.

➡ 그런데 그사이에 환율이 5% 오르면 갑이 채권 투자로 얻은 5%가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 즉 환율 변동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상쇄되는 셈이다.

5) 환율과 이자율 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자율 평가설'이 있다.

➡ 해외와 국내 이자율 차이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고, 환율 변동은 다시 이자율 차이에 따른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이자율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환율을 이해해야 한다.

문단 2 이자율 평가설에 따른 균형 환율

1)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은 국내 금융 자산과 해외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동일해지는 방향으로 변동하여 적정 수준의 환율이라 할 수 있는 균형 환율에 이르려는 경향이 있다.

➡ '균형 환율'은 '국내 금융 자산'과 '해외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같아지는 환율로 이해하면 되겠다. 균형 환율일 때의 환율이 적정 수준의 환율이므로, '이자율 평가설'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의 이론이기도 하다.

❗ **맥락 짚기** 결국 '이자율 평가설'이란 어떻게 환율이 균형 환율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겠다.

2) 현재 환율이 균형 환율일 때에는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text{국내 이자율} = \text{해외 이자율} + \frac{\text{예상 미래 환율} - \text{현재 환율}}{\text{현재 환율}}$$

식에서 우변은 해외 투자 수익률로, 해외 이자율에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더한 것이다.

➡ 일단 좌변의 '국내 이자율'은 곧 '국내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과 같다. 외환 시장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원화로 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 우변의 '해외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은 곧 '해외 이자율 +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과 같다. 이는 해외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원화를 '현재 환율'에 따라 외화로 환전하였다가, 투자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외화를 '예상 미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주목** 좌변과 우변이 일치한다는 것은 국내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과 해외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현재 환율이 균형 환율에 도달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다.

❗ **맥락 짚기** 결국 지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식은 현재 환율이 균형 환율일 때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현재 환율이 균형 환율이 아닐 때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야겠다.

3) 국내 채권 이자율이 연 9%, 미국 채권 이자율이 연 6%이며,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 1년 후의 예상 환율은 1,260원이라 하자.

➡ 2)의 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자. 우선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은 $\frac{1260 - 1200}{1200}$ 으로 5%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환율인 달러당 1,200원은 균형 환율이 아닌 거다.

4) 국내 채권 이자율이 더 높음에도, 국내의 투자자 '을'은 미국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1년 후 회수한다면[→ 얻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면], 6%의 채권 수익률에 예상 환차익[→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 5%를 더해 총 연 11%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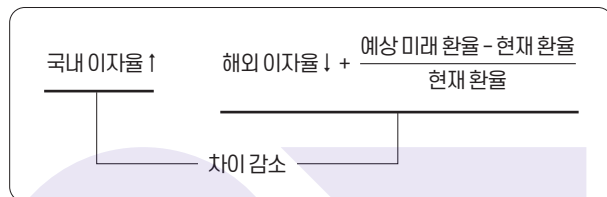
➡ 즉 채권의 이자율만 고려했을 때에는 '국내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지만 '예상 환차익'도 고려했을 때는 '미국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다. 따라서 '을'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에 투자할 거다.

❶ **매력 찾기**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국내 금융 자산과 해외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동일해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동할 것이기 때문이다[문단2-1]. 그리고 그로 인해 현재 환율은 균형 환율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변동할 거다. 이를 전제로 이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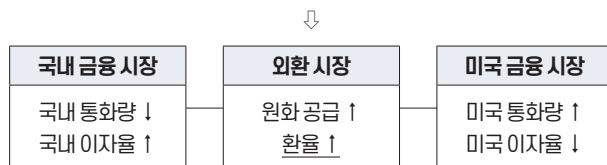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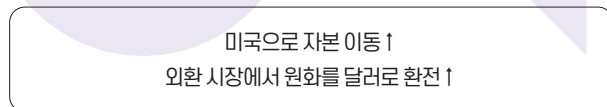
5) 그런데 이러한 기대에 따라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하면 국내 이자율은 상승하고 미국의 이자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돈의 희소성이 낮아지므로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 ➡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는 것은 국내의 자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의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통화량과 이자율이 반비례함을 파악했어야 한다.
- ➡ 반면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는 것은 미국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로 인해 미국의 이자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 ➡ 국내 이자율이 오르고 → 국내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미국의 이자율이 낮아지면 → 미국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결국 양 쪽의 기대 수익률 차이가 좁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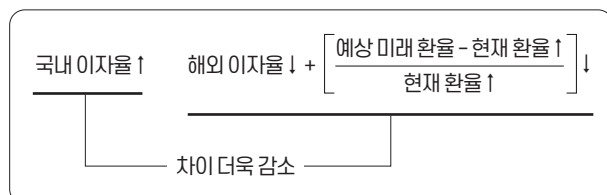
❶ **주목** 이때 환율의 변화에도 주목하자.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 아마도 일단 이자율에서의 변화에만 주목하자는 취지일 거다.]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단1-2와는 반대로 외환 시장에 원화가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6) 한편 이렇게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그 과정에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현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상 환차익이 줄어들어 미국 채권에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 줄어들 것이다.

➡ 5)에서 예상한 대로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이자율뿐만 아니라 환율도 바뀐다. 즉 현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예상 환차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국내와 미국 간의 기대 수익률 차이는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다.



7) 이자율 평가설은 이와 같이 국가 간 이자율 차이에 따라 균형 환율이 결정되며, ……

➡ 이건 문단2-2)까지의 설명이었고……

8) …… 자본이 이동하면서 현재 환율이 점차 균형 환율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 이건 문단2-6)까지의 설명이었다. 어느 한쪽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그쪽의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반대쪽의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는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❶ **주목**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율도 함께 변화하고, 그렇게 도달한 환율이 곧 균형 환율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이런 결론을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단 3 미래 환율에 대한 예상에 따른 환율 변동

1) 그런데 미래 환율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도 해외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달라진다.

➡ 사실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다. 애초에 문단2-2)의 식에서 예상 환차익의 분자에는 '예상 미래 환율'이 포함되어 있다. 즉 그로 인해 '해외 투자의 기대 수익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2) 사람들이 환율이 내릴 것이라고, 즉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국내 금융 자산에 대한 매력도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 '예상 미래 환율 - 현재 환율'이 음수인, 즉 '예상 환차익'이 음수(-)인 상황이다. 이는 곧 '해외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 자산에 대한 매력도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3) 그러면 국내 금융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외환 시장에 공급될 것이고 환율은 실제로 내려갈 것이다. 미래에 환율이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했을 뿐인데, 환율 하락이 현실화된 것이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사람들이 '예상 미래 환율 - 현재 환율'이 음수(-)일 거라고 생각하면 → 환율이 내릴 거라고 기대하면 해외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도 낮아진다. 따라서 환율은 실제로 하락한다 →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반대로 사람들이 '예상 미래 환율 - 현재 환율'이 양수(+)일 거라고 생각하면 → 환율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해외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환율은 실제로 상승한다 → 외환 시장에서 원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❶ **주목** 지금까지의 설명은 문단2-5)에서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풀이한 것이다. 지문을 읽을 때 과정을 잘 정리하는 일이 이만큼이나 중요하다.

4)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환율이 변동할 별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이렇게 환율 변동을 촉발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자본 이득만을 좇는 외환 투기 세력이 이 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이렇게 환율 변동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마무리이다.

우주 팽창률과 암흑 에너지

지문 평가

최근의 연구 성과를 다루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생소할 테고, 정보의 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수의 개념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상관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독해가 요구된다. 평균 이상의 난도에 익숙해지려면 좋은 훈련이 될 만한 지문이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천문학 - 암흑 에너지

표준 우주 모형, 암흑 에너지, 허블의 법칙, 후퇴 속도, 허블 그래프, 우주 팽창률, 적색 편이, 은하까지의 거리, 백색 왜성, 찬드라세카르 질량, Ia형 초신성, 실제 최대 밝기, 룩백타임 효과, 아인슈타인, 우주 상수

문단 1 표준 우주 모형과 암흑 에너지

1) 최신의 우주 모형인 **표준 우주 모형**에 의하면, 우주를 채우는 물질들과 에너지의 약 70%는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미지의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주의 상당 부분은 '암흑 에너지'다. 문제는 이것이야지 그 존재조차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에너지라는 점이다.

2)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못했음에도 표준 우주 모형에 도입된 이유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가정해야 Ia형 초신성들에 대한 최근의 관측 결과 등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❶ **맥락 짚기** 자연스레 이런 의문들이 떠오른다. 도대체 무슨 관측 결과라서 '암흑 에너지' 같은 미지의 개념을 동원해야 했던 걸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이번 지문의 화제로 삼아야겠다.

문단 2 허블의 법칙과 우주 팽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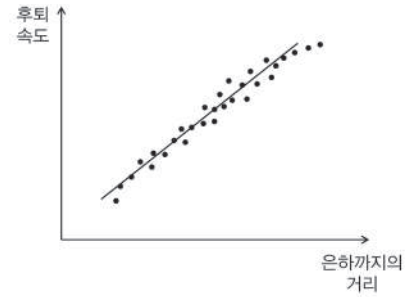
1) **허블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 은하 외부의 다른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인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우주가 점점 팽창하여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 '허블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우주 자체가 점점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그 은하는 더욱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은하까지의 거리 ↑ ⇒ 은하의 후퇴 속도 ↑

2) 그래서 가로축이 우리로부터의 [은하까지의] 거리, 세로축이 후퇴 속도인 **허블 그래프**상에서 은하들은 우상향하는 어떤 선 근처에 분포한다.

▶ '허블 그래프'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다.



3) 허블 그래프상에서 이 선 위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주**의 팽창 속도인 **우주 팽창률**에 해당한다.

▶ 이렇게 상관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다.

우주 팽창률
= 허블 그래프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 (후퇴 속도의 변화량)/(은하까지의 거리의 변화량)

❶ **주목** 이때 '우상향하는 어떤 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 선 위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우상향하는 어떤 선'이 단순히 직선이었다면 위의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이는 곧 '우상향하는 어떤 선'이 단순한 직선이 아님을 함의한다.

4) 우주 팽창률을 구하려면 은하들의 후퇴 속도와 거리를 알아야 하는데, ...

▶ 3)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다.

5) **후퇴 속도**는 은하로부터 오는 빛의 **적색 편이**를 관측함으로써 알 수 있다. **적색 편이**는 관측자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의 파장이 실제보다 길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그 값이 클수록 광원의 후퇴 속도 역시 더 빠르다.

▶ 먼저 '후퇴 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 적색 편이값은 광원의 후퇴 속도에 비례하므로, 적색 편이값을 관측함으로써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적색 편이값 ↑ ⇒ 후퇴 속도 ↑

문단 3 은하까지의 거리 계산 방법

1) 우주 팽창률을 구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요소인 **은하까지의 거리**는 백색 왜성의 폭발로 만들어져 점차 밝아진 뒤 서서히 어두워지는 Ia형 초신성을 관측하여 구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여기서 'Ia형 초신성'이 등장하는데.....

❶ **맥락 짚기** 'I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 개념이 도입되었음을 떠올려야겠다(문단1).

2) 태양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량을 가지는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핵융합을 멈추면 핵을 둘러싸고 있던 기체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고, 핵이 식으면서 중력에 의해 수축되어 고밀도의 **백색 왜성**이 된다. 만약 백색 왜성 근처에 다른 천체가 존재하면 백색 왜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그 천체의 물질이 유입되어 백색 왜성의 질량이 점차 커지고,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4배인 **찬드라세카르 질량**을 넘는 순간 백색 왜성은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여 **Ia형 초신성**이 된다.

➡ 가벼운 질량의 별이 '백색 왜성'을 거쳐 'Ia형 초신성'이 되는 과정이다. 흐름을 짚어 보자.

<Ia형 초신성의 탄생>

가벼운 질량의 별 ⇒ 중력에 의해 수축
 ⇒ 백색 왜성 ⇒ 질량 ↑
 ⇒ 찬드라세카르 질량 초과 ⇒ 폭발 ⇒ Ia형 초신성

3) 모든 Ia형 초신성은 폭발할 때의 질량이 동일 [→ 찬드라세카르 질량을 넘어서는 순간 폭발하기 때문이다.] 하므로 폭발 후 가장 밝아지는 시점에서 밝기인 **실제 최대 밝기**가 동일하다.

❗ **주목** Ia형 초신성의 중요한 특징이다. 모든 Ia형 초신성은 우주 어디에서 만들어져도 '실제 최대 밝기'가 동일하다는 거다.

4) 따라서 여러 Ia형 초신성들 중 관측되는 최대 밝기가 어두운 것일수록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최대 밝기와 관측되는 최대 밝기의 차이를 활용하여 Ia형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해당 초신성이 속한 은하까지의 거리를 얻을 수 있다.

➡ 그렇겠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Ia형 초신성일수록 관측되는 최대 밝기가 어둡다. 따라서 관측되는 최대 밝기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확인하면, 역으로 해당 초신성이 속한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다. 상관관계를 정리해 보자.

(실제 최대 밝기 - 관측되는 최대 밝기) ↑
 ⇒ 은하까지의 거리 ↑

문단 4 최근의 관측 결과와 암흑 에너지의 도입

1) 1998년 천문학자들은 Ia형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주 팽창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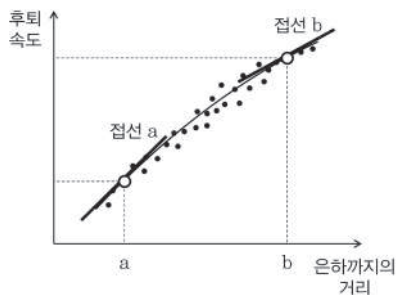
➡ Ia형 초신성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 해당 초신성이 속한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그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 **주목** 우주 팽창률이 감소한다는 정보는 특별하다. 우주 팽창률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처음으로 제시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 은하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우주 팽창률은 줄어든다. 즉 후퇴 속도가 빨라지되, 빨라지는 정도는 느려진다. 이게 바로 Ia형 초신성에 대한 최근의 관측 결과에 해당하겠다[문단1-2].

Ia형 초신성까지의 거리 ↑ [→ 은하까지의 거리 ↑]
 ⇒ 우주 팽창률 ↓

➡ 문단2-2)에서 정리한 허블 그래프 역시 다시 다듬을 수 있겠다. 이제 왜 문단2-3)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 선 위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알겠다. 허블 그래프는 애초에 직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령 비교적 가까운 a 지점에서의 우주 팽창률은 크지만, 비교적 먼 b 지점에서의 우주 팽창률은 작다.



2) 빛은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므로 먼 거리를 이동한 빛일수록 더 오래된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루백타임 효과**라고 한다. 우리로부터 거리가 먼 곳의 우주 팽창률은 그만큼 더 과거의 우주 팽창률이라는 뜻이다. 이를 고려하면 허블 그래프에서 우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주 팽창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함을 의미한다.

➡ 우리가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찰할 때, 그 모습은 은하의 100억 년 전 모습이다.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도착하는 데 100억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루백타임 효과'다.

➡ 이를 고려해 1)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주 팽창률이 낮다는 건, 먼 과거의 우주일수록 우주 팽창률이 낮았다는 뜻이다.

❗ **주목** 바꿔 말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 팽창률은 높아지므로, 우주의 팽창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우주가 물질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물질들 간의 인력에 의해 우주 팽창 속도가 점차 감소할 것이므로, ……

➡ 우주가 물질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을 세웠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우주 팽창 속도는 관측 결과 점차 증가하므로, 이 가설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물질이 아닌 무언가가 우주를 채우고 있어야 하는데……

4) ……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우주에 밀어내는 힘인 척력을 유발하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 [→ 암흑 에너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척력을 유발하는 어떤 에너지를 상정해야만 한다. 물질들 간의 인력을 상쇄하고 [→ 우주를 수축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우주를 더욱 빠른 속도로 팽창시키려면 인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힘인 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주목** 이러한 척력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러한 에너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겠다. 문단1-2)에서 제기했던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이다.

문단 5 우주 상수와 암흑 에너지

1) 많은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와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팽창하지 않고 정적(靜的)인 우주를 가정했던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가 자체 중력에 의해 수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우주 상수**를 자신의 우주 모형에 도입하였다.

➡ '아인슈타인'은 애초부터 우주가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는 완전히 다른 우주론을 갖고 있었다. 그가 주장하는 '정적인 우주'가 성립하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중력을 상쇄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 우주 상수].

2) 이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 애초에 우주가 정적이지 않음이 알려지면서]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를 포기했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 상수가 암흑 에너지에 대한 물리적 표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 비록 관점은 달랐으나 아인슈타인의 연구가 오늘날의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는 데도 유효할 수 있다는 마무리다.

[22~25] 고전시가

(가) 「산중잡곡」 김득연

작품 평가

전체 49수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이 작품을 연시조로 보기에는 각 수의 내용 사이에 관련성이나 내적 긴밀성이 부족하다. 이는 작가가 「지수정가(止水亭歌)」를 지은 다음에 남은 생각이나 느낌을 따로 모아서 엮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9수는 대체로 은거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누리는 즐거움, 시문에 대한 생각, 인생의 덧없음과 늙음에 대한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제 3수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누대(樓臺)[→ 높게 세운 건물로, 연못을 내려다보며 즐기 위한 것이다.] 쌓으니

→ 은거지에서 사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대구의 형식이 쓰이고 있다.

풍월 연하(風月煙霞, 바람과 달과 안개와 노을)는 좌우(左右)로 오는 구나

→ '풍월 연하'가 마치 화자를 찾아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 자연이 벗인 양, 함께 어울리며 즐긴다는 것이다.

제 6수

배고프거든 바구니 밥 먹고 목마르거든 바가지 물 마시니

→ '바구니 밥'과 '바가지 물'은 가난한 삶을 의미한다.

이리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또 있도다

→ 가난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의 뜬구름 같은 부귀(富貴)[→ 의롭지 않게 얻어진 부귀]야 부러울 줄 있으랴

→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의문문의 형식을 이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 <제6수>는 「논어」에 실린 공자의 말을 거의 그대로 싣고 있다. 결국 화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 살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 공자의 말은 한마디로 「안빈낙도(安貧樂道)」로 요약할 수 있는데, 더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며 유학의 도를 즐겨 지키는 삶을 가리킨다.

제 9수

생애(生涯)는 몇 가닥 백발[→ 노년에 이른 화자의 삶을 요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심사(心事)는 한 조각 청산

→ [내] 생애는 몇 가닥 백발로만 남아 있고, 마음에는 한 조각 청산이 [있네]

→ 평생에 걸친 삶의 지향을 밝히고 있다. 비유적 표현이 돋보이는 멋진 구절이다.

설월 풍화(雪月風花, 눈과 달과 바람과 꽃)에 사시 가흥(四時佳興, 네 계절에 따라 느껴지는 아름다운 흥취) 다 갖췄다

→ 겨울의 눈, 가을의 달, 여름의 바람, 봄의 꽃이 있어서, 네 계절마다 화자가 자연에서 누릴 기쁨이 온전히 다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설월 풍화'는 계절과 관련된 시어로, 화자로 하여금 매 계절마다 흥취를 느끼게 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분위기와 관련된다.

이 외에 즐거운 일이 또 없을까 하노라

→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잘 나타나 있다.

제 20수

내 빈천(貧賤) 보내려 한들 이 빈천 뉘게 가며

남의 부귀 오라고 한들 저 부귀가 내게 오라

→ 누구에게나 '빈천'은 나를 떠나가고, '부귀'는 나에게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가난을 싫어하고 부귀를 좋아하는 것은 인자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런 것을 바란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짚고 있다.

보내지도 청하지도 말고 내 분(分, 분수)대로 하리라

→ [내 빈천을 남에게] 보내지도 [남의 부귀를 내게로] 청하지도 말고 내 분수대로 살리라.

→ 초장과 중장에서는 '내 빈천'과 '남의 부귀'를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 짓기를 통해, 종장에서는 자신의 분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그에 맞추어 만족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제 31수

세간(世間)에 민망한 일이 시(詩) 간난(艱難,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

[→ 시를 잘 쓰지 못해 겪는 어려움, 마음고생] 서럽더이다

→ 화자는 자신이 시를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남들 보기에 민망하고 그래서 이를 스스로 서러워한다고 말한다.

설월 풍화(雪月風花) 만나거든 대접하기 어려워라

→ 설월 풍화를 만나도 [시로써] 대접하기 어려워라.

→ '설월 풍화'가 화자를 찾아오는 손님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자는 이들 자연을 손님으로 맞아, 그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시를 지어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허다한 금장 수구(錦章繡句, 수놓은 비단같이 아름답고 빼어난 문장과 글귀)를 이 몸에 나눠 주소서

→ 매우 많은 아름다운 문장과 글귀를 이 몸에 나누어 주소서.

→ '주소서'는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다. 종장에서 화자는 청자를 상정하여 자신의 소망[→ '금장 수구'를 나누어 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대할 때 그에 잘 어울리는 멋진 표현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26~30] 현대시

(가) 「나의 집」 김소월

작품 평가

김소월의 시는 어렵다. 말은 쉽지만, 감상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화자가 지닌 기다림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도록 하자.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멧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 ▶ 화자는 어순의 도치를 활용하여 '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공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화자가 짓겠다는 이 집은 화자의 소망과 상상이 담겨 있는 공간이었다. '나'의 집이 왜 '큰길'을 앞에 둔 곳에 있어야 하는지는 좀 더 읽어 보자.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제각기)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 ▶ '큰길'에서 사람들이 각각 '혼자' 가고 있단다. 외롭고 고독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각자가 각자의 여정을 감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이얀 여울터(→ 색채어)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 ▶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나'는 문 앞에 서서 기다리겠다고 한다. 이 기다리는 행위에 주목하자. 흰빛과 검은빛, 혹은 밝음과 어둠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도 챙기자.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 어둠의 심상)로

세상은 희게(→ 색채어), 또는 고요하게(→ 밝음의 이미지),

번쩍이며(→ 밝음의 이미지) 오는 아침부터,

- ▶ 시간이 경과했다. 화자는 희망을 놓지 않고 저녁부터 새벽, 다시 아침까지 기다림을 이어 가고 있다.
- ▶ 어둠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늘), 전체적으로는 밝음의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세상이 '희게, 또는 고요하게' 밝고, 아침이 '번쩍이며' 오기 때문이다. 이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는 화자의 내면과 결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번민이나 근심, 두려움 등이 있지만,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쁨이 그러한 두려움과 번민을 점차 압도해 나가는 상황인 거다.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 ▶ '나'는 여전히 기다리며 '길손' 하나하나를 눈여겨본다. 이러려고 '큰길'을 앞에 둔 곳에 집을 지은 거다. 그래야 오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살필 수 있으니까. 결국 앞서 나왔던 공간에 관한 정보는, 화자의 '기다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던 셈이다.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 반복과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시도 잊지 않는 그리움, 멈출 줄 모르는 기다림을 읽을 수 있겠다.
- ▶ '지나가는 길손'마다 '그대인가' 눈여겨보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그대'가 언제 온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대'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대'인가 싶어 자세히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참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다림의 대상을 조국의 광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6~30] 현대시

(나) 「월훈」 박용래

작품 평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가, 밤이 내려앉은 외딴집의 정경을 포착하여 세밀하게 그려 내고 있는 시이다. 화자의 감정도 인물의 감정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진술의 태도나 시어들의 사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으므로 상황을 떠올리며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침침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막대기를 덮어 위장한 구덩이)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 ▶ 마을이 있는 곳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침침산중'에도 없고 '모랫둑' 너머의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허방다리'를 들어내면 보인다고 했다. 외딴곳 중에서도 더욱 외딴 마을이겠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마을이 아닌 거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마을이라는 느낌도 다소 있다.

갱(坑, 물을 파내기 위하여 땅속을 파 들어간 굴) 속 같은 마을. 골짜기, 해가, 노루꼬리 해(→ 해가 짧다는 거다.)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슬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 ▶ 해가 노루꼬리처럼 짧은 계절은 겨울이다. 즉 외딴 마을에 긴 겨울밤이 왔다는 이야기다. 외딴집에 켜져 있는 불빛이 창문을 통해 '모과 빛'처럼 노랗게 보이고 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노인의 생활이 단출하고 소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짓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 ▶ 짙단이 흘러내리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에서 노인이 온 세상을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다. 또 그 소리를 '설레임'이라고 한 것에서, 노인의 내면이 어떤 기대나 바람 등으로 미세하게나마 흔들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어쩌면 노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노인이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한다고 한 것과 결부하여 보면, 홀로 밤을 새는 상황에서 다른 존재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병이나 버릇으로 소리도 크지 아니하고 힘도 그다지 들이지 않으며 자주 하는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폐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 ▶ 귀뚜라미의 울음은 앞서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노인의 속마음과 관련 있는 소리겠다. 노인이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 같은 감정의 크기를, '벽이 무너지라고' 우는 귀뚜라미의 울음에서 느낄 수 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달무리).

- ▶ 눈이 오는 것인지, 달무리가 진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창호지 문살이 부영계 보인다. 고요한 밤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서정성을, 눈과 달빛이 지닌 흰빛의 이미지가 극대화하고 있다.